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5월 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2.(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5. 2. (월)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담당팀장	김상모 에너지산업정책과장 (5360) 서기웅 에너지수요관리과장 (5380)	담당자	김정기 서기관(044-203-5361)

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된다.

- 규제신문고 건의가 성과확정계약 도입과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재개로 이어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 애로사항 해소 -

□ 1년 넘게 중단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발표했다.

○ 이번 팩토링 재개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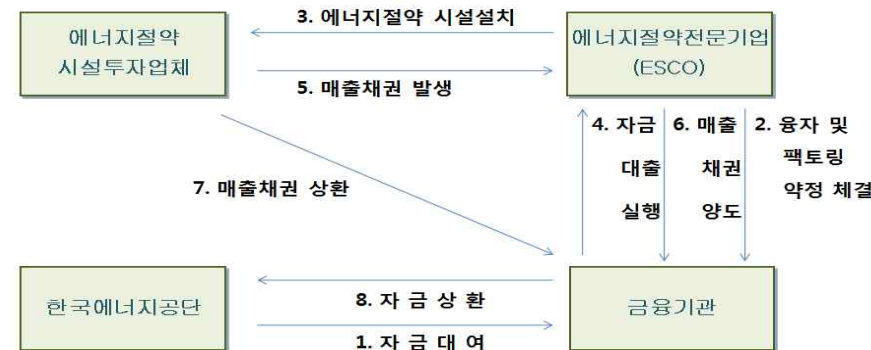
추진개요

□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

** 팩토링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부채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



○ 하지만, '14년 4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이 되었다.

< 팩토링 관련 대법판결 ('14.4) >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개선배경

- '15년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인 A는 B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공사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방식으로 수주하였다.
- 당초 A기업은 부채비율 증가 부담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을 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C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인수하였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14.4월 확정판결)으로 인해 더 이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 C 금융기관의 팩토링 실적 >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건수(건)	95	46	3	0
금액(억원)	291	195	82	0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업체 A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금융기관 면담, 2차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도개선

- 검토결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의 핵심요건이지만, 이미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의 경우 절감량 보증을 완화한다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팩토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도달했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 7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93호)을 통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기업간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였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했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 해당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확정계약은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확정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팩토링을 재개한다는 내부방침('15.10월)을 결정했다.

개선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작년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했다.
- 그리고 동 업체들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공사를 완료한 후 채권을 양도하는 팩토링(총 8.5억원)을 4월 21일과 28일에 성사시킴으로써 1년 넘게 중단되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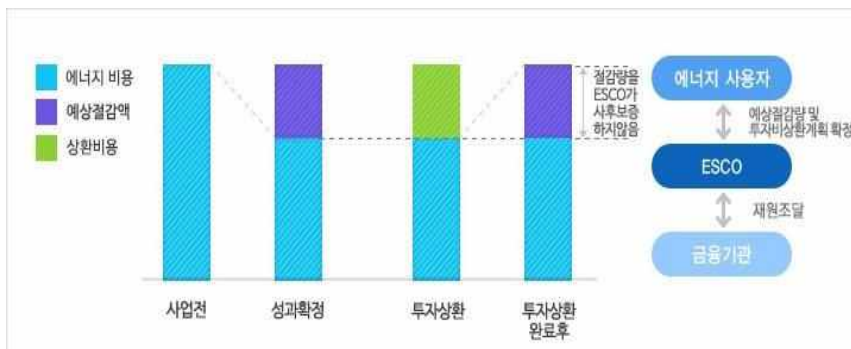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 김정기 서기관(044-203-5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SCO투자사업 계약종류 3종(요약) >

계약방식 (도입시기)	사업구도	특 징	에너지절감량(액)
성과확정		ESCO 자금조달, 상환계획 확정	성과확정 약정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에너지절약형사출기에 한함)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사용자 자금조달, ESCO 절감액 보증	- 목표절감량, 보증절감량 (목표절감량의 80%초과) 1) 보증 > 실적 : ESCO가 사용자에게 차액 현금보전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ESCO 자금조달, ESCO 절감액 보증	2) 목표 < 실적 : 합의에 의해 양측 초과 성과 배분 3) 보증 = 실적 : 보증(상환)기간 후 사업 종료

① 성과확정 계약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 사용자가 확인한 후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②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의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ESCO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③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 조달이 어려워,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에너지절감량(액)도 ESCO가 보증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